



안녕하세요? 김순덕 수녀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에서 장녀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 조부모님, 여동생 둘, 남동생 셋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많은 저는 할머니 방에서 잠을 잤는데, 잠에서 깨어나 처음 보는 모습은 기도하시는 할머니 모습이었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와 둘이 4km 넘는 길을 걸어 성당에 가곤 하였는데, 혼자 성당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는 ‘천사가 네 오른쪽에 함께 계시며 네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시편 121은 제게 힘이 됩니다.

세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 무렵 성당에 함께 다녔던 친구의 언니가 바오로 딸 수녀원에 입회하였는데, 친구의 언니가 보내온 천국의 열쇠, 프란치스코의 잔 꽃송이, 고백록 등 많은 신심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성소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수도자와 교사가 꿈이었던 저는 입회 전 8년 동안 교사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대에서 미사 차림 하는 본당 수녀님을 보며 ‘저 수녀님처럼 날마다 제대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끌림에 1990년 2월에 입회하였고 1997년 1월 28일 종신서원 하였습니다. 충주 성모유치원장, 은혜학교, Ecuador INESEM,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테레사의 집, 지현동성당, 갈현동 성당, 용머리성당, 월영성당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즐겁게 만났고, 하느님의 사랑에 찬 섭리가 제 삶의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삶의 터닝 포인트는 2008~2011년 Ecuador 선교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 섭리에 의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Pedro Carbo와 Daule를 비롯하여 7개 군 200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시킨 일, 재활치료를 겸한 방문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트럭에 학습 교재와 장비를 싣고 가서 허름한 창고, 길바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일들은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선교 안에서의 일치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목하느냐에 상관없이 사랑의 유대다. 가난한 이에 대한 각별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애덕의 길을 실천하는 복음적 삶으로 부름 받은 공동 소명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있다.」 (영성 문서140쪽)라는 말씀은 에콰도르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마더 씨튼 안에서 한 수도 가족임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목하느냐에 상관없이 선행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Hello, Sisters! I'm Sr. Kim, Soon Dok. Born as the oldest among three girls and three boys in Nonsan, Chungnam Province, I spent my childhood with my parents and grandparents. Having so many siblings, I had to sleep with my grandma; every morning when I woke up, I saw her praying and then went to bed at night seeing her pray. Since I was in second grade in elementary school, I walked 4km to attend Mass with a friend. At times when I had to go by myself, grandma used to say, "An angel is at your right and keeps your step from stumbling." Psalm 121 still gives me strength.

I received the sacrament of Baptism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round that time, my friend's older sister, who went to church with me, entered the daughters of St. Paul. I nurtured the dream of a religious vocation by reading and discussing many devotional books such as *The Keys to Heaven*, *The Little Flowers of St. Francis*, and *Confessions*.

With a wish to be a Catholic sister and a teacher, I spent eight years as a school teacher before entering our community. Seeing sisters preparing for Mass in my parish, I joined our Congregation in February 1990 with the desire to be and live with Jesus more closely every day near the altar. I professed perpetual vows on January 28, 1997 and I ministered at St. Mary Kindergarten in Choongju, Eunhae School, INESEM, Teresa's House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Jihyun-dong Parish, Galhyun-dong Parish, Yongmeo-ri Parish, and Wolyoung-dong Parish. Working in many ministries, I encountered God present in various ways and witnessed everything that happened in my life as the providence of God's love.



The turning point of my life was the Ecuador mission from 2008 through 2011. There, I could learn how to trust God's providence. Two hundred homes of physically disabled children, home visitation of seven counties as well as Pedro Carbo and Daule, enrolling them in government offices for getting benefits, and teaching children on the street or in a shabby warehouse when we opened a visiting school program with rehabilitation treatment - loading learning materials and equipment in a truck, all those memories are the precious gifts from God for me.

"Our unity in mission-regardless of where or how we minister – is the bond of Charity. Our most profound connection resides in our common call to gospel living practiced in the way of charity, with a special and abiding love for the poor." (Spirituality Document p. 140) makes me realize we are one family as a Congregation in Mother Seton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location. I want to be a joyful and good person wherever I serve and in whatever ways I minister.

